

'제4회 대한민국 판놀음' 펼쳐진다

국립민속국악원, 춘향문화예술회관 · 지리산소극장서 창극 · 명인 · 명무 · 명창 무대

국립민속국악원(원장 왕기석)은 오는 7월 6일부터 8월 6일까지 춘향문화예술회관, 지리산소극장에서 창극과 명인, 명무, 명창의 무대인 '제4회 대한민국 판놀음'을 개최한다.

첫날인 7월 6일 오후 7시에는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개막공연으로 국립민속국악원 대표 작품인 '춘향전-몽룡을 기다리며'가 무대에 오른다. 당대를 대표하는 류기형(연출), 왕기석(작창), 이태백(음악), 채향순(안무)가 제작진으로 참여했다.

'별별창극'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8개 민간 단체의 창극이 펼쳐지는 무대로, 새롭게 해석해낸 창극에서부터 서양의 고전을 창작 창극으로 꾸민 무대, 그리고 연희창극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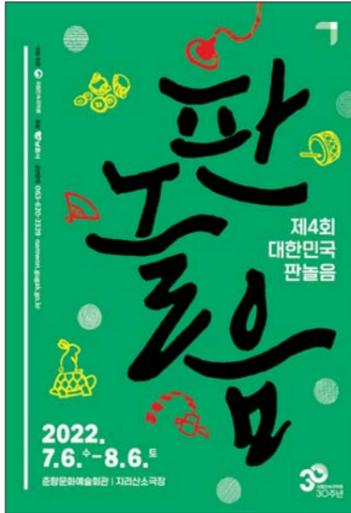
△7월 9일은 창작하는 타투의 두아유월의 눈 △13일은 문화예술협동조합 심정강의 개인 춘향 △16일은 연희점추리의 백수지왕 △20일은 거꾸로 프로젝트의 3박소리극-홍보가 비하인드 스토리 △23일은 랑커뮤니케이션의 토션생, 용궁가다 △27일은 입과손스튜디오의 판소리 레미제라블 △30일은 아트프랫폼 동화의

광대가 리플레토 △8월 3일에는 판소리 양상블 하랑가의 풀비츠와의 대화가 공연되며, 공연 시간은 평일은 오후 7시, 토요일은 오후 3시이며, 공연 장소는 춘향문화예술회관이다.

'소리 판' 무대는 지리산 소극장에서 오후 3시에 오토이 판소리 완창무대를 감상할 수 있는 무대로 △7월 7일은 우정문의 한승호제 적벽가 △8일은 허애선의 강산제 심청가 △14일은 유하영의 박초월제 수궁가 △15일은 서진희의 강산제 심청가 △21일은 한금제의 강산제 심청가 △22일은 김송의 김세종제 춘향가 △28일은 최영란의 동초제 춘향가 △29일은 김금희의 박초월제 홍보가로 총 8명의 명창무대가 열린다.

8월 6일 폐막공연은 대한민국의 대표 예인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종합무대로 구성되는 최고의 무대이며,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오후 4시에 개최되고, 7세 이상이면 관람이 가능하며, 관람문의 및 예약은 063-620-2329나 혹은 카카오톡 채널(상담원과 대화)을 통해 가능하다.

/남원=김기두기자



'제4회 대한민국 판놀음' 포스터

동남아 여행객 유치 위한 필리핀 현지 마케팅

전북문화관광재단, 'Travel Tour Expo 2022' 참가 전북도 관광상품 · 전라권 공동 홍보 진행

전북문화관광재단은 동남아 여행객 확보를 위해 현지 홍보마케팅에 나섰다.

이에 따르면 재단은 국제 여행시장 재개와 코로나 국제정세 회복에 발맞춰 지난 24~26일 까지 필리핀 마닐라 SMX 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Travel Tour Expo 2022'에 참가, 전라북도 관광상품 및 전라권 공동 홍보마케팅을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에는 약 5만 명이 참가한 필리핀 최대 규모의 여행박람회로, 우리나라와 일본을 비롯한 5개국도 참가했다. 이번 박람회에서 재단은 전북의 한류 기반 K-pop, K-drama, K-sport 콘텐츠 및 '2023 전북 아·태 마스터스' 대회를 집중 홍보했다.

또한 전라권 공동홍보마케팅으로 SNS 미디어를 활용한 포스팅 이벤트, 3개 시·도 여행 퀴즈, 톨렛 이벤트 등을 진행, 일반인의 참여도를 높여 수요 창출과 연계되도록 집중 공략을 펼쳤다.

특히 이번 로드쇼를 통해 재단은 해외 마케팅 시장의 핵심 국가 및 관심 국가로 설정한 동남아 여행시장의 인지도 확보는 물론 한국관광공사(KTO) 마닐라지사의 협업을 통해 필리핀 여행시장 전반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와 더불어 재단은 태국 인플루언서를 활용



한 전북 해외 미디어 온라인 홍보 사업 추진, 그리고 필리핀의 유명 TV 프로그램인 'Amazing Earth'에 전북을 소개하는 기회를 확보해 올해 9월 촬영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박람회는 2021년 11월 전라북도·전남·광주관광재단의 '전라권 관광·마이스 활성화 교류협력 협약'의 일환으로 3개 기관은 국내 주요 인바운드 여행사 대상 공동설명회 및 팸투어 개최, '2022 아·태 마이스 비즈니스 페스티벌' 공동 참가 등 협약 관련 공동 연계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운동목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국내·외 여행시장 재개 및 수요 증가에 따른 새로운 여행상품과 킬러콘텐츠 개발에 힘써 전북 여행수요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은성 기자

전북도 관광기념품 100선 추가상품 공모전 시상식 우수상품 5개 선정

지난 28일 '2022 전라북도 관광기념품 100선 추가상품 공모전' 시상식이 열렸다.

'전라북도 관광기념품 100선'은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우수한 관광기념품을 개발하기 위해 운영하는 사업이다. 2015년부터 매년 25개 상품을 선정해 총 100개 상품을 구성했다.

최종 선정된 제품은 △전북의 사계(세라누리, 대표 정세라) △한옥 냄비반침(스모작은나무 작업실, 대표 전수진) △청연루 한송이화병(담공방, 대표 신수경) △탄생식 팔찌(king가죽공방, 대표 양은하) △도자기를 품다(골든스피어, 대표 오정원) 등 5개 상품이다.

재단은 선정된 상품의 안정적인 유통경로 확보를 위해 △전라북도 관광기념품 인증마크 부여 △생산 장려금 지원 △홍보물 제작 △관광기념품 박람회 참가 △특관광 행사 및 관광기념품 100선 판매관 입점 등 홍보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총 5개의 상품은 6월 29일부터 7월 말까지 전라북도 관광기념품 100선 판매관에서 전시된다. /정은성 기자

온라인 세계태권도 품새 오픈 챌린지II

세계태권도연맹 · 태권도진흥재단, 7월 9일까지 참가자 모집

세계태권도연맹(총재 조정원)이 주최하고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오영환)이 주관하는 무주 태권도원 온라인 2022 세계태권도 품새 오픈 챌린지II 대회의 참가자 모집이 6월 27일부터 7월 9일까지 약 2주간 진행된다.

이번 대회는 지난 3월 개최된 온라인 품새 오픈 챌린지II과 같이 국가대표 부문과 오픈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대회기간은 7월 18일부터 8월 29일까지 개최된다.

대회 접수는 WT 온라인 참가시스템(GMS)에서 가능하며 국가대표 부문 참가자 및 팀 임원진은 WT Global Athlete License(GAL)과 Global Official License(GOL)에 등록되어 있어야만 접수가 가능하다.

국가대표 부문개인전은 국가원이 발행한 공인단장 소지자로서 각 참가부별로 국가협회 추천 1명만 출전할 수 있으며, 공인 품새는 12세~17세, 자유품새는 17세 이하에 해당자에 한해 출전자격이 부여된다.

오픈부문 개인전은 국가원 공인단장 소지자, 복사전 및 단체전은 팀 구성원 중 최소 1인이 4급(파랑띠) 이상을 보유하면 누구나 출전할 수 있다.

이번 대회에서는 기존과 달리 복사전 혼성부 단체전 남자부와 여자부가 새롭게 추가되어 태권도인들의 참가기회의 폭을 더 넓혔다.

대회 입상자들에게는 메달과 상금 등의 부상은 물론 국가대표 부문 1~8위 입상자들은 G6 등급의 무주태권도원 온라인 2022



세계태권도 품새 오픈 챌린지 파이널대회 출전 자격도 주어지며 더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태권도진흥재단 오영환 이사장은 "세계 대회의 개최 경험을 살려 이번 온라인 품새 오픈 챌린지II 또한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오픈 부문에 참가자격의 폭도 넓은 만큼 더 많은 세계 태권도인들이 기량을 마음껏 선보일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회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태권도진흥재단 및 세계태권도연맹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백제왕도 익산에서 즐기는 '백제문화유산주간'

익산 · 공주 · 부여 등서 7월 8-14일 진행

익산시는 백제문화유산주간을 맞아 백제왕도 익산의 다양한 문화유산을 선보인다.

시는 문화재청과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박물관, 공주시, 부여군, (재)백제세계유산센터 등 8개 기관과 내달 8일부터 14일까지 익산시, 충남 공주시, 부여군 일대에서 백제문화유산이 갖는 역사·문화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는 '백제문화유산주간'을 개최한다.

2018년에 시작된 '백제문화유산주간'은 백제 역사유적지구 8개소가 2015년 7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것을 기념하며 백제 문화유산이 갖는 역사·문화의 중요성을 다양한 체험 행사와 교육, 강의 등을 통해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마다 개최하는 행사다.

익산시 주요행사로는 △리레이터에게 듣는 미륵사지 이야기(7월 8일 15:00~15:30, 국립익산박물관) △내가 만드는 미륵사 석등(7월 8일, 12일, 13일, 14일 16:00~16:50, 국립익산박물관) △어서와, 입질리 고분은 알고 왔지?(7



월 9일 12:00~18:00, 익산 입질리 고분) 등이 있다.

특히 이번 행사를 대표하는 '백제문화유산 녹턴'은 △백제 왕도 유적과 출토 유물에 대한 해설 △야간 음악회로 구성된 체험 행사로 오는 14일 국립익산박물관에서 진행된다.

선착순으로 각각 50명씩 모집하며, 내달 1일 오전 10시에 각 박물관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백제문화유산주간 참여 기관의 행사 일정, 프로그램 내용 등은 백제문화유산주간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